커뮤니티를 향한 나눔지
News Letter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연락처: 646-450-8603
KACE 시민참여센터 www.kace.org

<제 84 호> 2025 년 2 월 18 일

이민자 보호 교회 네트워크의 교회방문 이민국 집행 대응 설명회 시리즈

이민자 보호 교회 네트워크(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es Network, 이하 이보교)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 집행 정책과 관련하여 교회 방문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 시리즈는 서류미비 이민자와 교회 공동체가 이민 단속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보교의 교회 방문 설명회는 뉴욕과 뉴저지의 여러 한인 교회에서 열리고 있으며, 이미 세 차례의 설명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각 설명회에서는 이민법 전문가, 목회자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트럼프 행정부의 민감한 장소 정책 철회와 그에 따른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서류미비자, 비자소지자,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구체적 대응 방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보교의 교회방문 설명회는 다음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분 이슈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둘째, 우리가 도울 영역을 벗어나는 것에도 힘이 되려고 합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받쳐 주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우산을 내려 놓고 함께 비를 맞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임마누엘 스타일이라 믿습니다.
셋째, 합법적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도 모두 문제라는 인식를 나누기 위해서 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탁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0)

독일 니묄러 목사는 처음에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강제수용소에 갇혔고, 그곳에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처음 그들이 사회주의자를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노동조합원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유대인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탁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0)

현재까지 진행된 설명회 일정 및 후기

1. 뉴욕우리교회 (2/9)
이보교의 첫 번째 교회 방문 설명회가 뉴욕우리교회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조원태 담임목사가 설명회 취지와 이보교의 역할에 대해 발제하고, 최영수 변호사가 대응방법을,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가 이민 정책의 큰 흐름을 설명하며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황자경 변호사가 제작한 PPT 자료는 참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현장에서 권리카드도 전달받았고, 이민국 집행 대응법 실습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반드시 들어야 할 내용이었다"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2. 뉴저지 유영교회 (2/16)
뉴저지 팰팍 소재 유영교회(담임 장병근 목사)에서 '이민자 권리와 추방 대처법'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교회의 담임목사, 사역자, 신도 등 20 여 명이 참석하여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으며, 김대호 목사가 이보교의 설립 배경과 그간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박동규 변호사가 '이민국의 추방정책과 현황, 직장과 교회에서의 대처법'을, 그리고 박재홍 변호사가 '이민자 권리 및 체포, 구금, 추방 시 대처법'을 각각 발제했습니다.
열띤 질의응답 시간 후 장병근 담임목사의 마침 기도로 마무리되었으며, 장 목사는 "서류미비자들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이웃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3. 효신장로교회 (2/16)
이보교 설명회는 80 여명의 교인이 참여한 가운데 효신장로교회에서도 진행되었습니다. 조원태 목사가 이보교와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한 후, 최영수 변호사 강의, 김동찬 대표의 이민정세분석과 설명회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발제했고, 조원태 목사의 기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개별 법률상담도 이어졌습니다.

김광선 담임목사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품으며, 설명회를 통해 함께함으로써 그들의 두려움을 덜어주고, 신앙 공동체로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라고 말하며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나누며 두려움을 해소하고, 서류미비자의 형편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감동적인 시간이 되었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의 방문 설명회 일정

이보교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교회 방문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2/23 – 퀸즈한인교회 (김바나바 담임목사)
3/2 – 프라미스교회 (허연행 담임목사)
3/9 - MET CHURCH (김진우 담임목사)
3/16 – 친구교회(빈상석 담임목사)
3/23 – 한울림교회(김원재 담임목사)
4/6 – 넘치는교회 (주영광 담임목사)

각 교회의 일정과 세부 프로그램은 교회별로 조율되며, 관심 있는 교회 및 기관은 이보교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는 다음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민감한 장소 정책 철회의 영향: 현 정부의 이민집행 정책 변화가 교회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ICE 단속 대응 가이드: 교회와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
서류미비자 및 이민자의 권리: 체포 및 단속 시 기본적인 권리 및 보호 절차
교회의 역할과 행동 계획: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회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
이보교는 “교회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 이 설명회가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설명회 신청 및 문의

• 일정 조율 가능 기간: 2025 년 2 월 ~ 4 월
• 신청 방법: 전화 문의
뉴욕: 조원태 목사 (718) 309-6980
뉴져지: 이준규 목사 (917) 348-4456

이번 설명회는 방문하는 교회의 성도들 뿐 아니라 교회 바깥의 서류미비자 뿐 아니라 동포사회의 이민자들을 초대합니다.

참여한 교회들이 풍랑이 이는 거친 바다에서 희망의 빛을 비추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신장로교회 설명회



유영교회 설명회



뉴욕우리교회 설명회




감사합니다.


ICE 이민국 단속
대응 메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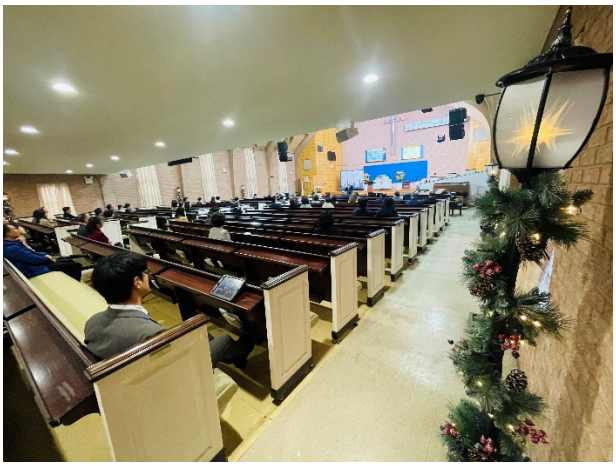
7/8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es Network

www.kascn. org